
장-뤽 낭시의 도시 논의를 통한 단수이자 복수로서의 도시론 탐구

백승한 (연세대학교)

I. 들어가며

영화감독 소피아 코폴라(Sofia Copola)의 2003년 작품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원제: *Lost in Translation*)의 도입 장면(약 1분 25초~2분 32초)은 소비가 일상화된 대도시 상업경관과 그 미적 차원, 그리고 뒤따르는 소외감 및 안도감을 포괄하는 복합적 정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할리우드 스타 밥 해리스(영화배우 빌 머레이)는 선토리 위스키(Suntory Whiskey)의 광고촬영을 위해 동경을 처음 방문한다. 시카고에서 동경까지의 긴 비행에 지친 해리스는 지친 표정으로 택시에 탑승하며,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동경의 화려한 네온사인 밤풍경이다. 해석할 수 없는 타 국가의 언어들로 가득한 동경의 밤풍경은 해리스에게 이질적인 종류이지만, 끝없이 늘어서는 비슷한 종류의 풍경에 그는 점차적으로 주목한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에서 놀람으로 미묘하게 변하며, 카메라는 해리스의 표정과 택시 유리창 밖의 풍경을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보여준다.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이국적 밤풍경으로만 여겼던 해리스는, 선토리 위스키 광고모델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거대한 광고판에 전시되어 동경의 스펙터클한 경관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된다. 그에 따라 해리스는 파도라마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상업적 도시풍경이 어쩌면 자신의 삶의 순간들이 반영된 공간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한 채 이를 더욱 자세히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한다.

뒤따르는 장면은 점멸하는 네온사인의 모습이다. ‘삼천리약품(三千里藥品)’이라는 상호가 크게 새겨진 네온사인은 화려한 색감과 역동적인 리듬으로 해리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네온사인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본 장면은 해리스의 표정과는 더 이상 교차하지 않은 채 거의 정지 상태로 몇 초간 머물러 있다. 풍경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영화 속 네온사인은 어느 순간 주목의 대상이 되며, 끊임없는 점멸은 광고로서의 네온사인이 단순한 도구 이상의 살아있는 생명체인 듯한 느낌마저 불러일으킨다. 영화 속 ‘삼천리약품’ 광고물은 그것을 바라보는 영화 속 해리스, 그리고 영화 바깥의 관객 모두에게 마주하는 광고물과의 관계성을 생각하게끔 하며, 이는 넓게는 소비문화 시대의 광고물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이상의 존재론적 차원 또한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¹ 영화 속 광고물은 한편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풍경의 일부이며, 또한 ‘지금 여기’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미지의 존재론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이다(Mitchell, 2005, xiv). 나아가 끊임없이 점멸하는 네온사인은 소비문화 공간의 영역성과 탈영역성, 그리고 스펙터클하면서 또한 일상생활의 일부로 작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개인적이고 공적인 관계 맺기의 차원을 생각하게끔 촉구한다. 생산양식이나 소비패턴 이상의 의미생성 장치로서의 거리광고물, 그리고 이를 통한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반복하는 듯하면서도 또한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스펙터클 시대의 도시일상은 본 논문에서

1.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시키는 주요한 기제로서의 광고(advertising)는 비판이론(The Critical Theory)이 등장한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주제이다.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광고를 경험의 충위가 사라진 차가운 언어로 간주하며, 앙리 르페브르는 소비를 촉발하는 광고의 문구와 이미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이 지니는 “진짜의 감성(genuine sensibility)”을 왜곡하는 기제라고 본다. 비슷한 맥락에서 데이비드 하비는 광고를 표면으로서의 이미지 속에 내포된 대중의 “욕망과 취향”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말하며, 장 보드리야르는 겉으로 보기에 다양하고 지역성을 반영하는 듯한 “하이퍼마켓” 현상은 “통제된 사회화” 이상이 아님을 주장한다 (Adorno and Horkheimer, 1972, 165-166; Lefebvre, 1991, 35; Harvey, 1990, 287; Baudrillard, 1994; 76).

다를 주요한 논의의 주제이다.

도시공간이 항상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활동과 개입, 그리고 그로 인한 긴장과 충돌의 순간들로 구성되며 그럼으로써 항상 새로운 영향관계들이 즉각적으로 등장하고 소멸하는 삶의 무대라는 측면에서, 그 복합적인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도시의 사유와 실천은 항상 불충분한 시도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거대 스케일에서의 도시는 엄격하게 계획되고 디자 인되어지는 한편, 미시적 스케일에서의 도시란 예정되지 않는 활동들과 이벤트들에 의해 끊임없이 조직되고 또한 해체되며 그 형태를 지속적으로 달리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생활의 실천’은 건축가 혹은 행정관료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도시사업만큼 중요하며, 양자는 그 중요도의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은 종류이다(de Certeau, 1984, xx-xxii). 누적된 시간과 지역 고유의 가치를 반영하는 장소성의 추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critical)’ 관계 맺기의 전략은 최근 몇십 년간의 도시와 건축의 정체성을 탐구함에 있어서 지배적인 동향이었다(Relph, 1976, 44-62; Tuan, 1977, 1-7; Frampton, 1983, 149). 하지만 이러한 도시·건축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은 ‘지금 여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강도와 방향으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층위를 읽어내기에는 한계로 작용한다. 한편 이후의 연구는 보다 도시의 복합적인 힘의 네트워크와 영역의 확장과 수축, 그리고 지리적 범주로서의 지역성/장소성에 한정하지 않는 복합체로서의 도시와 그 경험적 차원에 주목한다(정현목, 2013; 정혜진, 2009; 정혜진, 2015). 본 논문은 ‘진정한’ 장소의 가치와 그렇지 않은 것, ‘위로부터 아래로의(top-down)’ 제도적 힘의 개입과 ‘아래로부터 위로의(bottom-up)’의 저항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투쟁, 혹은 이상적인 도시 이미지의 수립과 ‘타락한’ 도시현실 사이의 명확한 이분법적 사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서적 매개 수단으로서의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참여주체들 사이의 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비위계적이고 탈영역적인, 그리고 “무한한 사물, 양상, 차이”를 생성하는 도시의 열린 차원 및 그 존재론적 지평에 주목한

다(Vinegar, 2014, 258; Rossi, 2012, 362).

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논문은 프랑스 철학자 장-뤽 낭시(Jean-Luc Nancy, 1940~현재)의 주요 저작을 탐독하며, 특히 현대도시와 관련하는 그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² 낭시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져오고 있지만, ‘도시연구(Urban Studies)’와 관련된 논의들은 그의 존재론적 탐구의 맥락에서 다소 분산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낭시의 도시 논의는 세계화 시대의 공간성과 그 현상학적 차원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접점이며, 본고는 이를 위해 낭시의 저작과 관련하는 국내 외의 문헌을 조사하고 그 도시적 함의점 및 도시해석의 관점을 도출하는데 집중하였다.³

분석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낭시의 공동체 논의 분석을 통한 현대도시의 탐구이다. ‘공동분모 없는 공동체’로 대표되는 낭시의 공동체론은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도시공간에서 함께하기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평이다. 둘째는 스펙터클(spectacle)에 대한 낭시 논의의 도시론적 확장이다. 낭시는 2차대전 이후 확장하는 소비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세계를 시도하였던 1960년대 이후의 스펙터클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며, 본고는 이를 통해 스펙터클 시대의 도시가 가지는 복합적 의미의 차원에 대해서 살펴본다. 셋째는 낭시의 일상생활(everyday life) 개념을 통한 도시공간에서의 감각과 의미에 대한 탐구이다. 낭시에 의하면 일상생활이란 근본적으로 ‘구조(rescue)’될 수 없는 종류로서, 이는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감각세

2.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 다섯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그 도시적 함의점에 대해 논의한다: ① 『무위의 공동체 The Inoperative Community』 (1991); ② 『세계의 의미 The Sense of the World』 (1997); ③ 『단수이자 복수로서의 존재 Being Singular Plural』 (2000); ④ 『세계의 창조 The Creation of the World』 (2007); ⑤ 『철학적 연대기 Philosophical Chronicles』 (2008). 그리고 낭시의 감각(sense) 논의와 관련하여, 그의 책 『유한한 사고 A Finite Thinking』 (2003)와 에세이 “비범한 감각(Extraordinary Sense)” (2013)은 또 다른 참고문헌이다.

3. 본 논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용구문의 한글번역은 저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계로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넷째는 (종종 상업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하는) 공공 공간의 일상적 경험과 그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탐구이다. 이는 특히 지구화 시대의 공공 공간에 대한 마크 오제(Marc Augé)의 인류학적 현지조사와의 연계 속에서 시도된다.

II. 낭시의 존재론과 도시적 함의점

1. 공통분모 없는 도시공동체

〈무위의 공동체〉(1984)는 20세기 말 사회주의 체제의 쇠락과 함께 세계화 시대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는 낭시의 대표저작이며, 이는 근·현대 도시적 상황 속에서의 관계 맺기 및 공동체 수립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 접점이다. 낭시는 공동체를 절대적인 기원(origin)을 상정할 수 없는 종류로 간주하며, 이상적인 과거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향수로부터 벗어나 그 현재적 가치에 주목한다. 다음은 공동체에 대한 낭시의 생각을 보여준다:

“잃어버린, 혹은 부수어진 공동체는 모든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패러다임에 의해서 입증된다: 자연적인 가정, 아테네 도시, 로마 공화국,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 기업, 코뮌, 혹은 형제애 - 이는 항상 상실된 시대에 대한 문제였으며, 그 안에서의 공동체는 긴밀하며 조화롭고, 그리고 파괴할 수 없는 유대관계로 얽여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도와 의례, 상징, 내재적인 통일과 친밀함, 그리고 자율성의 재현 혹은 생생하게 제공된 무엇을 통해 이를 재생시켜 왔다(Nancy, 1984, 9).”

게젤샤프트(Gesellschaft)로서의 공동체가 종종 과거의 이상화된 모델(게마인샤프트 Gemeinschaft)과 반대되는 “상실된 시대의 문제”로 이해

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낭시는 그러한 “상실”이 가지는 허구성을 지적하며 공동체란 늘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한다(유현주, 2014, 5-6). 그에 따르면, 과거에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델은 (예측 및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재현될 수 없는 종류이다. 또한 낭시는 개인(individual)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고정불변의 요소이기보다는 항상 “나누어질 수 있는(divisible)” 자율적 존재임을 주장한다(Nancy, 1984, 6). 여기에서의 ‘나눔’이란 신체의 역동적인 속성 및 주변 환경(milieu)과의 뒤섞임 속에서 펼쳐지는 정서적 차원(affectivity), 혹은 버틀러(Judith Butler)가 말하는 수행성(performativity)의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비록 혈연공동체나 지연공동체와 같이 유대감과 친밀함이 깊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이 가지는 무한한 나눔의 속성·역량은 완벽한 조화나 일체감의 수립을 좌절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오히려 유대감과 친밀감이 보장되지 않는 근·현대 도시상황에서의 공동체는 “외로움, 거절, 혼계, 무력함”과 같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하기 어려운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고 또한 지속된다(Nancy, 1984, 11). 낭시에게 도시란 “무엇보다도 ‘공동체’이기보다는 ‘공공 공간’”이다(Nancy, 1996, 23). 그가 생각하는 도시는 물리적 함께하기 이상의 초월적 가치나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통제 및 관리되는 내부적 공동체의 수립이 불가능한 영역이며, 또한 “공동된 기원”이 부재하는 ‘타자’들이 일시적으로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무대이다(Nancy, 1996, 23; Blanchot, 1988, 1; Lingis, 1994, 10).⁴

따라서 낭시에게 공동체는 외부적 힘의 개입에 따라 온전히 통제되거나 관리될 수 없는 종류이며, 그가 말하는 “미완성(incompletion)”으로서의 공동체는 도시·건축적 차원의 계획과 설계, 그리고 공공미술 및 ‘마

4. 블랑쇼(Maurice Blanchot)와 링기스(Alphonso Lingis)는 낭시의 공동체 개념을 각각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로 표현한다.

을만들기와 같은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할 수 있는 지점이다. 낭시에게 “미완성은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원칙이며, 불충분함이나 결여 이기보다는 공유의 활동이며, 특이한 균열들을 통해 펼쳐지는 방해받지 않는 경로의 역동성이다”(Nancy, 1984, 35). 이는 20세기를 거쳐 발전해온 도시 및 건축계획 역사의 맥락에서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일레르 하워드(Ebenezer Howards)의 정원 도시(Garden City)나 300만 인구를 위한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Radiant City)의 제안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를 거치며 발전해온 산업사회에 대한 근대 도시 계획의 대표 사례이다. 하지만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사무·주거·산업’과 같이 명확한 공간적 영역 구분에 의존한 코르뷔지에의 제안은 다소 기계적인 종류였고, 이는 계획의 수립 이후 불특정 다수가 그려내는 다양한 삶의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후 20세기 후반의 도시 디자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informal)” 디자인과 “직접적인 행동(direct action)”, 혹은 “지역적 상호작용(local interaction)”이나 “집단의사결정”에 기반을 두는, 다르게 표현할 때 ‘강한’ 디자인이 아닌 ‘약한’ 디자인을 지향하며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목한다(Dovey, 2010, 6; Samson, 2010, 174; Kwack and Park, 2011, 56). 이러한 참여 기반의 도시 실천은 미리 고안된 계획의 정확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방해요소일 수 있지만, 블랑쇼(Blanchot)가 말하는 “언워킹(unworking)” 개념을 통해 낭시가 공동체의 “작업(working)”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대립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주장하듯, 기원이 부재하는 공동체는 도시적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함께하기의 순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Nancy, 1984, 31).

2. 스펙터클의 사회, 혹은 사회의 스펙터클

낭시의 ‘공통분모 없는 공동체’론은 전통적인 공동체의 개념에 의존하기보다 20세기 말 확장하는 세계화 시대의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며, 그의 ‘스펙터클(spectacle)’ 논의는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1996년 저서 〈단수이자 복수로서의 존재〉 중 “사회의 스펙터클 (The Spectacle of Society, pp. 65-73)”에서, 낭시는 “시야의 앞에 위치한 어떠한 것, 특히 두드러지거나 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스펙터클 개념을 그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Dictionary.com Unbridged, 2016년 7월 27일 검색). 스펙터클에 대한 낭시의 정의는 다음 문장에서 나타난다: “스펙터클이 없는 사회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는 스펙터클 그 자체가 기 때문이다”(Nancy, 1996, 67). 낭시의 발언은 상황주의자(The Situationist International)의 창시자 기 드보르(Guy Debord)가 1967년 선언한 스펙터클 개념에 대한 반론이다. 1960년대 당시 소비문화의 확산과 냉전 분위기의 지속, 그리고 매체의 확장에 따른 시공간의 압축 및 새로운 시각문화의 도래에 주목한 드보르에게, 일상생활 세계는 “단지 나타나는 것이 좋을 뿐이고, 좋은 것이 나타”나는 피상적인 종류였다(Debord, 1995, 15). 그에 따르면, 광고 이미지로 전락하는 여성의 신체, 텔레비전에서 반복적으로 방영되는 원자폭탄의 장면이 촉발하는 무감각, 그리고 수동적인 여가활동으로서의 영화감상 등은 모두 원본성의 경험을 어렵게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관계 맺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모든 견고한 것은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는 칼 마르크스의 발언을 20세기 자본주의적 상황으로 발전시키는 드보르는, 일상생활 세계를 위기적 상황으로 진단함에 따라 ‘구조(rescue)’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낭시는 스펙터클의 동시대적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드보르의 논리를 역전시키며, “스펙터클의 사회”가 아닌 “사회의 스펙터클”을 제안한다. 낭시에게 스펙터클이란 소비 자본주의의 어두운 측면을 반영하는 부수적 현상이기보다는 본질적인 속성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 그에게 스펙터클은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한 현상이며 또한 참여와 소통을 촉발하는 작동 기제이다. 다만 낭시가 설명하는 스펙터클 사회에서의 참여와 소통은 이상적인 방식으로보다는 그것의 부재를 통해, 혹은 링기스의 표

현을 빌리자면 산만한 도시공간에서 발산하는 군중들의 “잡음(noise)”이나 “웅얼거림(murmur)”을 통해 전개된다(Lingis, 1994, 12). 낭시는 이를 “함께 나타남(coinher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공통분모 내에서 함께하기란 특이성을 지닌 존재들이 있으며, 자신들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들이 (단지 교차점을 공유하지 않은 채) 공존하며, 서로 노출되고, 드러내지거나 혹은 제공되는 정도에서만 함께 나타남을 의미한다(Nancy, 1984, 58).”

여기서 낭시가 말하는 ‘함께하기’의 순간이 드보르가 비판적으로 인식한 ‘나타남’이 일상적 삶의 형태로 자리 잡은 스펙터클 사회의 ‘내부’에서 작동한다는 진단은 주목할 지점이다. 불특정 개인의 특이성(singularity)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일상생활 세계의 복잡적 차원, 혹은 ‘단수이자 복수로서의’ 일상생활 세계의 본질적 속성을 지시하는 접두사 ‘com’은 항상 현재 시점에 그 방점이 찍혀 있다. 세계의 본질이란 다름 아닌 시시각각 변하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며, ‘복수로서의’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일상생활 층위는 따라서 늘 차이를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층위는 공존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교차점을 공유”하지 않는 채 “제공되는 정도에서만” (불충분한 정도로) 함께하게 된다.

낭시의 논의를 확장할 때, 지하철이나 공항, 혹은 상업 거리는 한편으로 서로가 보고 보임에 따라 각 개인의 주체성이 온전히 공유되거나 교류되지 않는 타자적 공간이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듯, (스펙터클) 사회란 근본적으로 이러한 피상적 마주침 혹은 스쳐 지나감 이상의 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종류라면, (공통분모를 수반하는 공동체의 추구와 같은) 깊이 에 대한 갈망은 그 문제설정에서부터 재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낭시의 스펙터클 논의는 소비 자본주의에 의해 작동하는 도시일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내부화시키고자 하는 개념적 접근에 다름 아니며, 이는 소외감과 상품물신이 지배적인 스펙터클 사회를 지나치게 무비판적으로

로 (그리고 무감각하게) 수용하는 태도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때로 자신의 세계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optimistic)”이라는 평가에 대해, 낭시는 세계에 대한 낙관론과 비판론은 모두 미래시점으로서의 “기대(anticipations)”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 여기의 “현재(the present)”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함을 주장한다(Nancy, 2007, 534). 생산과 소비의 순환에 바탕을 두는 자본주의와 세기말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따른 불평등, 그리고 매체의 발전에 따른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와 같은 동시대적 현상을 목도하는 낭시 역시 조악하고 “불편한(awkward)” 현실을 인정한다(Nancy, 2007, 534). 하지만, 다시 그의 표현을 빌리면, 세계는 절망적으로 어긋나 있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희망적이지도 않다(Nancy, 2007, 534). 이는 무감각한 수용이나 염세주의와 같은 극단적 태도에 의존하지 않는 채, 일상생활의 복합적 차원에 접근하는 낭시의 태도를 반영하는 지점이다.

3. ‘구조’될 수 없는 일상생활 세계의 감각

전술하였듯, 낭시의 스펙터클 논의는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관계 맺기와 공동체, 그리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층위를 탐구할 수 있는 접점이다. 그렇다면 낭시가 말하는 ‘일상’은 타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그것의 ‘구조(rescue)’를 촉구하는 기존의 일상생활 담론과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가?⁵ 이는 먼저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그의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낭시는 변화하는 ‘세계(monde)’의 의미를 탐구하는 맥락에서 소외와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지구적 차원의 변

5. 도시발전에 따른 인간적 스케일의 사라짐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도시학자 제이콥스(Jane Jacobs), 제도권력을 포함한 자본의 일상적 침투에 따른 소외현상에 주목한 르페브르(Lefebvre), 그리고 고대 도시의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을 통해 현대도시를 접근하는 더글라스(Mike Douglass)의 논의는 모두 일상의 ‘구조’라는 프레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Lefebvre, 1991; Jacobs, 1992; Douglass, 2016).

화(globalization),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양상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론적 지평을 모색하고 이를 확장 및 수축하는 과정(mondialisation)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다(Nancy, 2013, 532). 낭시와 철학자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세계화 개념을 함께 논의하며 맑스주의 도시담론의 지평으로 끌어들이는 지리학자 매든(David Madden)에 따르면, 전자(globalization)는 감각(sense)의 균일화와 의미(meaning)의 평평함을, 그리고 후자(mondialisation)는 (낭시의 공동체 논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불완전함, 생성, 열림, 그리고 출생(incompleteness, becoming, openness, natality)”을 수반한다(Madden, 2012, 775-776). 이러한 두 개념 사이의 이분법적 구분은 낭시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이다. 하지만 맑스주의 철학자 르페브르와 낭시를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를 전개시키는 매든의 도시비평 또한 비판적 독해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낭시가 말하는 세계는 외부적 힘의 개입에 따라 형성되는 “위협적이고 압도적인(threatening and overwhelming)” 총체임과 동시에, “권력(power)”이나 “계급투쟁(class struggle)”과 같은 고전적 자본주의의 비평담론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무한성의 영역이기 때문이다(Madden, 2012, 775; Nancy, 2013, 533). 또한 낭시의 세계화 관점에 따르면 “정의(justice)”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의 대상이지만, 이는 그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러한 내·외부의 경계 자체가 특정 문화권의 도덕주의적 전통에 의거하지 않는 종류이다(Nancy, 2013, 533).⁶

6. 생성적 세계에 대한 낭시의 논의는 그의 저작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한편, 다음은 세계의 시작과 끝의 경계 없음, 또는 세계의 창조와 무에 대한 그의 개념이 도시논의로 확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이다:

“이 세계는 무에서부터 생성하며, 그러한 세계 이전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기존의] 모델이나 원칙, 그리고 정해진 결말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은 바로 세계의 정의와 그 의미를 형성하는 요인이다” (Nancy, 2007, 55).

이러한 맥락에서 〈철학적 연대기〉에서 등장하는 낭시의 일상성(the everyday) 논의는 그의 존재론적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일상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낭시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을 구조해야 하는가? ... 그리고 만약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조약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Nancy, 2008, 39)

...

그것[일상]을 -사고(thought) 및 (누군가가 “일상생활의 무대”라고 부른) 회화(painting)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며, [단순한] 사건으로서 도래하게 하거나, 일상과 반대되는 사건으로서 도약하게 하고, [나아가] 일상의 복합적 차원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Nancy, 2008, 41).”

‘일상생활 영역은 인위적인 개입 혹은 작업을 통해 구조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낭시는 그러한 개입·작업이 수행되는 순간 일상이 가지는 특이성이 증발해버리거나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럼에도 그러

...

로마가 오랫동안 그러하였듯이 더 이상 [대문자 C로 대표되는 도시(city)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현재의] 도시[상황]은 ... [고전적인] 도시론이나 도시성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도시적이지(urban) 않다. [현재의 도시상황은] 초정치적이고 대도시적이거나 공동-도시적이며, 또한 ‘도시적 네트워크’로 불리는 느슨한 그물망에 사로잡혀 있다” (Nancy, 2007, 33).

...

“도시는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도시는 그것의 자체적인 수립 이외의 다른 기의(signified)와 관계되지 않으며, 또한 극복하거나 확장할 다른 ‘정체성’이나 ‘미션’ 혹은 ‘운명’을 지니고 있지 않는, 도시의 외곽에 불과한 최소의 기의이다. 도시의 공동적인 것은 시민들이 서로의 경로를 지나치게 되는 공간 이상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의 관계성의 외부 이상의 통일을 지니고 있지 않다(Nancy, 1993, 104).”

한 증발과 왜곡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현실에 대한 비평적 시선을 제시한다. 펼쳐진 현실로서의 일상생활 순간들이 ‘생각’이나 ‘회화’를 통해 다시 직조되고 재탄생하는 순간 그 특이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낭시의 발언은, 무의식적 경험의 총체로서의 일상생활과 작업(working)이나 제도화된 사업(project)으로서의 그것이 가지는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게끔 한다. 낭시가 본문에서 언급하듯, 캠벨 수프나 마릴린 먼로와 같은 소비문화 시대의 도상에 주목하는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실크 스크린 작업은 기념비화 및 ‘이벤트’화의 결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무심코 마주하게 되는 대상들에 대한 의식적 주목을 유도한다(Nancy, 2008, 43). 이러한 기념비화·이벤트화는 예술작품이나 도시공간에서의 기념비 및 다양한 물질적 프로젝트에 대한 무용론은 아니다. 그보다, 낭시는 일상에 대한 주의(attention)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형태로 재탄생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극에 주목한다. 그의 monde 개념에서 또한 나타나듯, 낭시의 일상 논의는 일반화할 수 없는 무한한, 하지만 ‘유한한’ 생각하기의 방식으로 수행되는, 세계에 대한 사유·감각 그리고 실천에 대한 방법론적 탐구이다(Nancy, 2013, 13).

4. 공공 공간에서의 느슨한 관계 맺기

지금까지 살펴본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와 ‘사회의 스펙터클’, 그리고 ‘구조’될 수 없는 일상생활 논의는 모두 열린 차원으로서의 세계의 의미에 대한 탐구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이는 공공 공간에서의 일상적 도시경험과 ‘느슨한’ 관계 맺기라는 맥락에서 또한 접근할 수 있다. 지하철과 백화점, 그리고 공장과 아케이드를 포함한 일상적 환경에서 사람들끼리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은, 비록 서로 “교차점을 공유하지 않”고 단지 “드러내지거나 혹은 제공되는 정도에서만 함께” 방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관계 맺기의 순간이다. 대도시의 공공성과 일상적 경험에 대한 낭시의 논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종류이다. 짐멜(Georg Simmel)의

블라제(blasé)와 베나민(Walter Benjamin)의 산보자(flâneur), 그리고 사르트르(Jean-Paul Sartre)와 세넷(Richard Sennett)이 주목하는 도시 공공 공간에서의 개인성과 타자성은 모두 20세기 초반 대도시의 등장과 심리적 방어기제, 그리고 대도시 경험에서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사례이다. 낭시 또한 이러한 도시공간에서의 일상적 경험에 대해서 접근하며, “어떤 사람(someone)”에 대한 논의는 그 구체적인 지점이다:

“[여기서의]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또한 서로 관계하는 개인들에 선행하는 공동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특이성은 구체성이 아니며, (종족, 성, 계층, 위계와 같은) 집단의 부분 또한 아니다” (Nancy, 1993, 71).

여기서 낭시가 말하는 익명적 주체로서의 ‘어떤 사람’은 심리적 방어기제로서의 블라제를 말하는 짐멜이나 공공 공간에서의 개인성의 몰락을 말하는 세넷과는 다른 종류이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그의 책 『존재와 시간』(*Being and Time*) (1927)에서 말하는 “공동현존재(mitt-dasein)” 개념을 확장하는 낭시에게, ‘어떤 사람’은 특정 문화권에 한정하지 않는 종류의 공동체를 수립할 수 있고, “공통된 기원이 없는” 낯선 곳에서 세계화(mondialisation)의 과정에 참여하며 정체성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 열린 태도를 지닌 주체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니거(Aron Vinega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낭시는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서로 부딪치며 [빠르게] 지나가거나 차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스쳐지나가는 일련의 순간들로 구성된 관계의 외부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한 도시에서의 공통분모란 도시민들이 서로의 길을 교차하는 공간 이외의 어떠한 [단일한] 정체성이나 통일성도 없다(Vinegar, 2008, 106-107).”

파리의 지하철이나 뉴욕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혹은 도쿄 공항의 아

케이드나 싱가포르의 쇼핑몰, 그리고 여느 도시의 맥도널드와 같은 도시 하부구조와 상업공간에서의 존재론적 차원을 탐구하는 비니거는 유목민적 도시상황 속에서의 ‘따로 또 함께’와 같은 느슨하지만 다른 종류의 연대의식이 발현되는 공동체적 순간들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도시라는 복합체를 사유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Stewart, 2007). 하이데거가 “토대 없음(groundlessness)”을 그의 존재론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한 것처럼, 낭시 역시 선행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이나 전통의 수립이 부재하는 “토대없음”은 오히려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채 개개인의 의미를 고유의 경험과 감각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한다(Nancy, 2003, 9). 나아가 건축가 쿨하스(Rem Koolhaas)는 그의 “포괄적인 도시(The Generic City)” 논의를 통해, 서로 비슷해 보이는 도시풍경과 패션, 그리고 에어 컨디션 시스템과 에스컬레이터 등과 같은 기술이 구현하는 생활 공간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공통분모’를 수립하는 요건임을 주장한다(Koolhaas, 1995).

인류학자 오제(Marc Augé)의 ‘비-장소(non-place)’ 논의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하철과 공항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서사는 오제의 대표적인 작업으로, 그는 이러한 도시 하부구조를 통해 익숙한 풍경을 새롭게 인식하고 세계화의 영향이 새로운 삶의 형식을 직조하는 구체적인 순간들에 주목한다. 지하철 노선, 이방인들과의 스쳐 지나감과 간헐적인 대화, 크레딧 카드의 사용을 통한 면세품의 구입, 비행기 탑승지역에서 구한 신문을 통한 세계동향 읽기와 안전벨트의 착용을 알리는 승무원의 목소리 등은, 오제의 표현을 빌리면, “자유의 느낌을 즐”길 수 있는 순간들이다(Augé, 1995, 2-6; Augé, 2002, 6-24). 하부구조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프로이트의 언캐니(uncanny) 개념을 암시하듯, “불현듯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음을 말하는 오제에게 도시는 외로움 속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영역이고, 또한 뒤르켐(Emil Durkheim)이 말하는 “기억의 의식과 집단 기억의 축제(ceremonies of memory, festivals of collective memory)”에 함몰되지 않는, 개인적이면서 공적인 기억을 생

성할 수 있는 비전통적인 ‘장소’이다(Augé, 2002, 17). 견고한 토대가 부재하는 도시 허부구조는 종종 그 의미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마주하게 되는 ‘백지상태(tabula rasa)’일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다원적이며 또한 생성적인 도시의 본질과 마주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III. 나가며

요약하자면, 본 논문은 확장적 도시연구의 맥락에서 낭시의 주요저작 및 관련문헌을 읽고, 이를 통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논리가 일상화된 21세기 현대도시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낭시 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공동체(communitiy)’, ‘스펙터클(spectacle)’, ‘일상생활(everyday life)’, 그리고 그의 ‘공공(the public)’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개념들은 낭시가 말하는 세계화(mondialisation) 혹은 생성적 삶의 무대로서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지점이며, 규정되지 않는 현재(the present)의 다원적 가치에 주목한다. 다음은 각 개념의 주요 논점에 대한 정리이다.

첫째, 낭시가 말하는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혼성적이고 생성적인 종류이다. 그가 말하는 ‘무위의 공동체(The inoperative community)’는 인위적인 힘의 행사나 개입을 통해 온전히 통제 혹은 관리될 수 없으며, 종종 겉으로 보기에 조화롭지 않고 또한 갈등을 유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속된다. 이러한 낭시의 공동체 개념은 과거 시점에 한정하지 않는 열린 도시적 의미를 사유하게끔 장려한다. 둘째, 낭시에게 있어 스펙터클은 현대도시의 주요한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이미지 시대의 존재론을 사유할 수 있는 이론적 지평이다. 낭시의 스펙터클 논의는 한편으로 소비 자본주의에 의해 작동하는 도시현실을 무비판적으로 낙관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이는 마주하는 도시현실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관계 맺기라는 양가성에 대한 사유의 결과이다. 셋째, 일상은 ‘구조’될 수 없다

는 낭시의 관점은 2차대전 이후 전개되는 소비 자본주의와 일상생활의 소외에 대한 계보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함축한다. 일상적 순간에 착안하여 이를 재현 혹은 재구축하는 행위는 작업 시점 이전의 특이성을 불가피하게 상실하거나 왜곡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특히 일상생활에 대한 성찰을 통한 도시·건축적 개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하게끔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에 대한 낭시의 논의는 변화하는 환경과 마주하는 개인의 유연한 정체성의 탐구, 그리고 도시공간에서의 느슨한 관계 맺기의 양상을 통한 공동체의 수립과 소멸을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익명적 도시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낭시는, 1990년대 이후 확장하는 도시 하부구조의 경험을 통한 존재론적 지평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낭시 존재론에 함축되어 있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가능성을 수반한다. 하지만, 전술하였듯, 낭시는 사회주의 이념의 쇠락 그리고 세계화 시대 이후의 일상생활은 단순히 희망적이지도 비판적이지도 않음을 주장하며, 이는 동시대 도시현상을 탐구함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다. 범지구적 도시 슬럼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조사를 통한 도시문제를 제기하는 데이비스(Mike Davis),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시의 권리’를 주장하는 하비(David Harvey)를 포함하여, 비판이론의 전통을 발전시키며 후기 자본주의적 상황에서의 도시이론과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련의 도시학자들의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도시담론의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현대의 도시공간은 아무런 논쟁의 여지 없이 소외되어가는, 타락한 현실인가? 아니면, 그러한 비판적 태도는 단순히 무시되거나 지양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다중적이고” 또한 “과잉 규정적”인 총체로서의, 그리고 “순환”과 “망상조직”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낭시의 정의, 그리고 그것이 촉발하는 도시현상의 모호함과 양가성에 대한 사유는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도시의 열린 차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의 경로일 것이다(Nancy, 1993, 104).

참고문헌

- 곽동화·박미진(2011). 「루시앙 크롤의 생태학적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계 논문집』 27(1), 55-64쪽.
- 유현주(2014).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와 대화의 미학」, 『미학예술학연구』 42, 3-30쪽.
- 정현목(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107-141쪽.
- 정혜진·신병윤·김광현(2009). 「현대 도시건축의 '가로'의 내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5(12), 287-298쪽.
- 정혜진(2015). 「마크 오제의 '비-장소'로 본 이동성의 도시건축공간과 장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1(3), 131-142쪽.
- Adorno, Theodor W. and Horkheimer, Max(1972). *Dialectic of Enlightenment*. trans. John Cumming, New York: Herder and Herder.
- Augé, Marc(1995).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trans. John Howe, London: Verso.
- Augé, Marc(2002). *In the Metro*. trans. Tom Conley,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udrillard, Jean(1994). *Simulacra and Simulation*. trans. Sheila Faria Glaser,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lanchot, Maurice(1988). *The Unavowable Community*. trans. Pierre Joris, New York: Station Hill Press.
- De Certeau, Michel(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 Steven Rendal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ndom House Inc(2016). “Dictionary.com Unabridged”, <http://www.dictionary.com/browse/spectacle> (검색일: 2016년 7월 27일).
- Douglass, Mike(2016). “Resilient Urbanism in the Anthropocene: The Rise of Progressive City Regions in Asia's Urban Transi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entation paper for the workshop on Resilience in Asian Urbanism, Center for Asian Urbanisms, (2016.3).
- Dovey, Kim(2010). *Becoming Places: Urbanism/Architecture/Identity/ Power*. London: Routledge.
- Frampton, Kenneth(1983).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Perspecta* 20, 147-162.
- Harvey, David(1990). *The Conditions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Jacobs, Jane(1992).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 Koolhaas, Rem(1995). "The Generic City". S,M,L,XL, eds. Rem Koolhaas and Bruce Mau, New York: The Monacelli Press, 1248-1264.
- Lefebvre, Henri(1991).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ume 1)*. trans. John Moore, London: Verso.
- Lingis, Alphonso(1994). *The Community of Those Who Have Nothing in Comm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adden, David J(2012). "City becoming world: Nancy, Lefebvre, and the global-urban imagin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 772-787.
- Mitchell, W.J.T.(2005). *What Do Pictures Want? The Lives and Loves of Imag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ancy, Jean-Luc(1991). *The Inoperative Community*. trans. Peter Connor et al. ,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1997). *The Sense of the World*. trans. Jeffrey S. Libret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2001). *Being Singular Plural*. trans. Robert D. Richardson and Anne E. O'Byrn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2003). *A Finite Thinking*. ed. Simon Spark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2007). *The Creation of the World or Globalization*. trans. Francois Raffoul and David Pettigrew,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_____(2007). "Nothing but the World: An Interview with Vacarme". *Rethinking Marxism* 19(4), 521-535.
- _____(2008). *Philosophical Chronicles*. translated by Franson Manjali,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 _____(2013). "Extraordinary Sense". trans. Michael Syrotinski. *The Senses and Society* 8(1), 10-13.
- Relf,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Rossi, Ugo(2012), "On the Varying Ontologies of Capitalism: Embeddedness, Dispossession, Subsump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7(3), 348-365.
- Samson, Kristine(2010). "The Becoming of Urban Space". *Design Research:*

- Synergies from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dited by Jesper Simonsen et al., New York: Routledge, 172-186.
- Simmel, Georg(1969).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ed. Richard Sennett, New Jersey: Prentice Hall.
- Stewart, Kathleen(2007). *Ordinary Affect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Tuan, Yi-Fu(1977). *Space and Place*.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Vinegar, Aron(2008). *I Am a Monument: On Learning from Las Vega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Vinegar, Aron(2014). "Reluzenz: On Richard Estes". *Heidegger and the Work of Art History*, eds. Amanda Boetzkes and Aron Vinegar, Burlington, V.T.: Ashgate, 249-267.

국문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 철학자 장-뤽 낭시의 도시논의 분석을 통해 21세기 도시환경의 복합성과 다중성을 반영하는 “단수이자 복수로서의” 도시탐구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낭시의 존재론적 탐구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개념(공동체, 스펙터클, 일상생활, 그리고 공공성)에 특히 주목한다. 각 개념이 수반하는 도시론적 함의점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낭시가 말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조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함께하기의 방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낭시의 공동체는 주어진 도시적 상황에서의 파편적이고 비위계적인 관계의 방식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삶의 조건이다. 둘째, 기 드보르의 영향력 있는 스펙터클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낭시는, 도시환경의 물질성은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성을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임을 주장한다.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비슷한 맥락에서 낭시는 자본주의 도시세계 내에서 ‘일상’이 가지는 다차원적 의미에 대해 탐구하며, 다른 표현 수단에 의해 재현되거나 차용될 수 없는 일상생활의 특이성에 주목한다. 그의 일상성 주장은 도시연구의 하위연구 분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로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또한 소비주의 행태와 매체 기반 실천의 뒤섞임을 통해 작동하는 도시생활의 다중성을 탐구하게끔 촉구한다. 넷째, 낭시의 존재론은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공공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하철과 공항, 그리고 쇼핑몰과 같은 도시 하부구조의 일상적 경험은 보다 깊은 의미를 수반하지 않는 사소한 종류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험은 느슨한 의미에서의 ‘따로 또 함께하기’의 방식을 촉발한다. 그의 공공성 논의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하는 세계화 시대에서의 장소의 현상학적 의미에 대한 탐구와 그 맥을 나란히 한다. 세계화와 소비문화의 흐름 속에서의 존재론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낭시의 철학을 도시담론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본 논문은, 소위

와 상품물신으로 대표되는 후기 자본주의 도시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유연한 도시론 모델을 제안한다.

키워드: 장-뤽 낭시, 단수이자 복수로서의 도시론, 공동체, 스펙터클, 일상성

Abstract

Exploring a Singularly Plural Urbanism through Jean-Luc Nancy's Theories of the City

Seunghan Paek (Yonsei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take French philosopher Jean-Luc Nancy's discussions of the city as a threshold, through which I propose a "singularly plural" model of urbanism that could reflect the complexity and multiplicity of the 21st century urban environments. In doing so, I pay particular attention to four concepts that are derived from Nancy's ontological explorations: 1) community 2) spectacle, 3) everyday life, and 4) the public. Followings are the summaries as to how I articulate each concept in its relationship with urban discourses. First, what Nancy means by the term 'community' does not necessarily mean a mode of being together that leads to a complete harmony and stability. What arise instead are forms of life that enable the modes of being together in given urban settings in fragmentary and non-hierarchical manners. Second, Nancy critically reinterprets Guy Debord's influential theory of the spectacle, through which he claims that the materialist urban conditions work as a crucial ground where one is able to speculate about and build the sociality and senses of community. Third, in a similar vein, Nancy explores the multiple meanings of the everyday in the capitalist urban world, in particular, being attentive to its 'singularity' that cannot simply be represented or appropriated by other means of expression. Such a claim of the everyday is based on his critical overview of the scholarship of everyday life, which has long been the subfield of 'Urban Studies'; furthermore, it urges us to explore the multiplicity of urban life that operates through the entanglement of consumerist behaviors and media-driven practices. Fourth, Nancy's ontology also encourages u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public (or publicness) in a broad sense; ordinary experiences of urban infrastructures such as the subway, airports,

shopping malls might look trivial in its semantic dimension, but nevertheless bring forth modes of 'being separate but together' in a loose sense. Nancy's discussions of the public also resonate to the phenomenological surveys of 'plac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hich has been the prominent zeigeist since the 1990s. By taking Nancy's ontological explorations as a crucial impetus in exploring the ontological possibilities of city space under the overriding moods of globalization and consumer culture, as well as critically reviewing the key urban discourses of the late capitalism that are represented by the theories of 'alienation' and 'commodity fetishism,' I propose a more resilient model of urbanism.

Keywords: Jean-Luc Nancy, Singularly Plural Urbanism, Community, Spectacle, the Everyday

Received: 30	December	2017
Reviewed: 7	February	2018
Accepted: 14	February	2018